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주님 공현 대축일



가장 큰 매력

우리는 세상 안에서 많은 것에 매력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매력이란 무엇입니까? 매력이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력적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돈에 매력을 느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명예에 매력을, 또 다른 이들은 권력에 매력을, 그 밖에도 연예인이나 가수 등 특정 인물이나 판사·검사·의사 등 '사자가 들어가는' 특정한 직업이나 음악 혹은 미술 등에 매력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많은 것들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매력적인 그것을 끊임없이 갖고 싶어 하고, 끊임없이 곁에 두고 싶어 하며, 계속해서 보고 싶어 하고, 그것을 위해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열정, 심지어 건강까지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평생토록 내 근처에 있기를 바라지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처음 본 별에 매력을 느껴, 별이 인도하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경배 드리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뜻 예물로 바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겠지만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가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매력을 내뿜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하느님을 그리고 그분의 구원 사업을 몰랐던 이들조차도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매력을 느낀 것입니다. 하느님을 몰랐던 이들에게도 아기 예수님께서 매력적이셨다면, 우리 믿는 이들에게 아기 예수님은 얼마나 더 매력적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매력에 빠져 우리가 느껴야 할 가장 큰 매력을 말입니다. 그 큰 매력을 가지신 분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다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느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매력에 빠져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진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 사파동본당 1보좌

주일 진레

- 제 1 독 서 이사 60,1-6
- 화 답 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제 2 독 서 에페 3,2,3-5-6
- 복 음 마태 2,1-12

새해를 맞으며

코로나19와 함께 살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주님의 은총 속에 2021년 ‘흰 소띠의 해’ 신축년辛丑年을 보내고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했다.

이렇게 해가 바뀔 때면 여러 가지로 마음이 교차交叉되곤 한다. 아쉬움과 잘못에 대한 반성, 좋은 일에 대한 기쁨, 그리고 도움을 준 일과 도움을 받은 일에 대한 감사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용서와 화해를 구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도 있다. 이 모두가 이제는 과거 속으로 흘러간다.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은 똑같은 하루다. 오늘 이 시간도 1년 365일 중 같은 하루의 시간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감회에 젖는다. 그것은 시간이 구분되어 있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인가?

독일의 고전주의 극작가요, 시인이며,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쉴러(Joha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 1759~1805)는 “시간의 걸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인간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영겁永劫의 흐름 위에 연年, 월月, 일日, 시時, 분分, 초秒라는 눈금을 새겨놓고 시간을 구분하면서 그 의미를 헤아리고 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현재는 우리에게 개념상으로 존재하지만, 포착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현재는 그 순간에 곧장 과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90,12에서 “저희의 날수를 셀 줄 알도록 가르치소서. 저희가 슬기로운 마음을 얻으리라.”라고 했다. 여기서 날수를 셀 줄 안다는 말은 나의 삶이 어디쯤 왔으며, 또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아본다는 것이다. 즉 나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동시에 나의 삶이 얼마쯤 남았으며,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 신앙인으로서 제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래야 슬기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생일, 회갑, 결혼기념일, 졸업식, 시무식 등을 갖는다.

소크라테스는 재판 과정에서 “철학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라는 아테네 법관들의 회유에 “음미吟味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찌개를 끓이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수시로 맛을 보가며 양념을 넣기도 하면서 간을 맞춘다. 우리의 삶도 요리하듯이 제대로 맛을 내고 있는지, 가끔 철학적인 사고로 음미해 봐야 한다. 또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느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가면서 간도 맞춰봐야 한다.

새해를 맞이하여 자라가 나이 많은 거북이에게 세배하러 갔다. 거북이는 절을 받으면서 “늘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충실히 살아라!”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자라가 “작은 것이라니요? 큰 것에 신경 쓰고 살아야 하지 않은가요?” 하고 되물었다. 거북이는 “아니야, 내가 이렇게 오래 사는 비결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결과라네. 느리더라도 한 걸음씩 열심히 기어가면, 경충경충 뛰는 토끼도 이길 수 있다네.”라고 했다.

그렇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라는 노래 가사처럼, 힘이 있고 시간이 있고 의욕이 있을 때 작은 일에 충실하며 인생을 열심히 잘 살아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한 살씩 더 먹은 자로서, 올 한 해도 ‘날수를 세어가면서’ 복된 삶이 되도록 하자.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

씨동무 못자리에서

이영자 켈마 시인/ 가톨릭문인회

주님바라기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인사드립니다.
속정 쌓인 그대들이 그리우면 전화로 안부를 묻곤 했는데
새해 첫 주일 오늘은 교구보 '영혼의 뜨락'에서 인사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 산청살이도 어언 열두 해로 접어들고 소일하는 텃밭일이 제법 늘었습니다.
간밤에는 어찌나 세찬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지 잠을 설치고 날이 밝자
얼른 산밭으로 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마늘밭에 까만 비닐을 씌우는데 나 홀로 맨땅에다 심었으니
추위에 얼어붙지 않았나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사방에서 날아온 낙엽이 속옷처럼 솜이불처럼 꽃마늘을 감싸고
그 온기에 냉이 꽃다리가 꽃을 피웠습니다.
비닐 덮어쓴 밭에서는 구경도 못할 풍경입니다.
아직 봄이 까만데 풀꽃이 서둘러 핀 까닭은 아무래도 그대들에게
풀꽃의 숨결을 전해 달라 조르는 것 같습니다.
혼자 보기 아까운 이것을 어서 받으십시오. 나이만큼 늙지 못하는 이 마음도요.
저희 집은 안개 잦은 운곡마을 윗담과 아랫담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밭에 살다시피 하는 초보자를 보기에 답답한지 농부 어르신들이 오르내리다
한마디씩 합니다. 풀이 역세기 전에 풀약 치라고요. 벌레가 달려들기 전에
살충제 치라고요. 영양실조에 걸린 배추밭에 어서 비료를 줘라 등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 말을 하나도 듣지 않으니 등 뒤에서 뒷담들을 합니다.
벌레를 키우는 사람 잡초를 키우는 사람이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오만 생물들과 같이 살리라 우리집 이름을 '씨동무 못자리'로 지었으니까요
밭머리에 선 대추나무 그 아래 넙덕바위는 고마우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 올리는 기도처입니다. 지구의 한 모서리 순한 땅심을
독한 약물로 괴롭히지 않고 철기시대처럼 호미질하며 지키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의 삶과 생각이 변하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빛의 길에 이음 길 되기를 갈망합니다.



권력과 존엄

김용태 마태오 신부/ 대전교구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권세가 대단하다는 말이다. 멀쩡히 날아가는 새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것은 순리를 거스를 수 있는 힘, 부당한 일까지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이 세상의 권력이란 그런 거다.

권력이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다. 권한은 그런 권력이 미치는 범위의 한계다.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모든 권력은 곧 권한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권력은 공동선을 지향하는 의무와 책임과 역할로 한정되고 법과 제도로 견제되는 힘 즉 권한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이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행사되는 여러 권력들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것’처럼 한계를 벗어난 힘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 세상 현실 속의 권한과 권력은 서로 다른 것이 되어버린다. 권한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면에서 본질적으로는 평등하다. 마치 시계에서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존재의 차별이 아닌 역할의 차이를 갖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권력이란 크기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불평등하다. 권력은 본질적으로 비교우위와 차별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권한은 어떤 힘이 있을 때 그 힘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면 권력은 그 힘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권한이지만 정치인이 사리사욕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권력이다. 검사나 판사가 죄인을 벌하고 죄 없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권한이지만 검사나 판사가 죄인을 풀어주고 죄 없는 사람을 벌하는 것은 권력이다. 기자가 어떤 일을 사실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권한이지만 기자가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처럼 보도하는 것은 권력이다. 군인과 경찰이 적이나 범죄자에 맞서는 것은 권한이지만 군인이나 경찰이 국민 혹은 시민에 맞서는 것은 권력이다.

결국 직책이 가진 힘을 권한이 아닌 권력으로 여기는 사람들로 인해 세상에는 자리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굳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다.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거나 좋은 자리라면 거기에는 권한이 주어지고 그 권한은 곧 권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권력욕은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골 촌부나 감방 안에 있는 죄수들의 마음속에도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리 권력을 탐하는 걸까? 권력이란 것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세 가지 유혹 중의 하나이고(루카 4,5-8 참조) 제자들도 그 때문에 서로 다툰 정도였으니(마르 10,35-45 참조) 사람들이 권력을 탐하는 데에는 뭔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게 뭘까? 어쩌면 그것은 내가 누군가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찾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 아닐까?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너무도 당연하고 마땅한 말이다. 그러나 교과서적인 이 말보다는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고 싶다.”라는 말이 더 실제적이란 생각이 든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기에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하고 또한 존중받고 싶어 한다. 나의 존엄함은 나에게 대한 상대의 존중으로 증명되는 것이기도 하다. 권력에 대한 추구는 이와 같은 존엄성에 대한 욕구를 오로지 다른 이와와의 비교와 차별을 통해 충족시키려는 행위일 것이다.

인간이 왜 존엄한지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라서 존엄하다는 이 생각은 얼핏 당연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이 자체가 인간 존엄성의 이유를 비교우위에서 찾는 모습이다. 이는 사람들의 일반적 사고 안에 자리하며 사람들의 삶에 수많은 비교와 차별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 생각해보라! 내가 동물보다 낮기에 존엄하다면 나보다 더 나은 존재 앞에서 나는 동물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고위 공직자들의 입에서 국민을 개돼지라고 말하는 일이 괜히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존엄함이란 것이 그 무언가보다 더 낮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면 나보다 더 나은 존재 앞에서 나는 존엄할 수 없으며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비교와 차별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폭력은 각자의 존엄함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자리하게 된다. 결국 권력의 폭거는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 되고 그에 저항하는 행위는 그저 또 다른 권력투쟁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이 어찌 비교우위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뛰어나다는 사실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는 사실에서 온다. 나보다 못한 것과의 격차를 통한 존엄함이 아니라 세상 가장 존귀하신 분과 가깝다는 사실에서 오는 존엄함이다. 존엄함이란 것이 그런 거라면 세상에서 아무리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어도 인간은 얼마든지 존엄할 수 있다. 재산, 학력, 지위, 출신, 성별 등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존엄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하느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창세 1,26-27 참조).

인간의 존엄성이 그런 거라면 나의 존엄성이 드러나고 존중되는 삶이란 결국 나 스스로가 하느님 닮은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모습 안에서 지존하신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를 ‘섬김’이라 가르치신다. 광야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루카 4,8) 그리고 높은 자리를 두고 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르 10,43)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비교와 차별의 권력욕에서 벗어나 모두가 참으로 존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르침이다. 이는 또한 세상의 모든 권력이 공동선을 위한 참된 권한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지침이기도 하다. 사실 만유 위에 가장 존엄하신 하느님께서 사람을 섬기시는데(마르 10,45 참조) 그 누군들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으랴!

출처 : 월간 생활성서



교구장 동정

수품자 선발예식

일시: 1월 3일(월) 19:30
장소: 교구청

사제·부제 서품식

일시: 1월 4일(화) 14:00
장소: 창원문성대학교 체육관

주교 특별방문미사 (성인유품 경경을 지향하며)

일시: 1월 7일(금) 10:00
장소: 완월동성당

몸은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3박 4일 효소단식 성경통독피정

일시: 1월 6일(목)~9일(주일)
1월 20일(목)~23일(주일)
장소: 청도성모솔숲마을
지도신부: 문봉한 신부 참가비: 15만 원
문의: 054·373·3955, 010·5878·9922

제주 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눈꽃산행피정: 1월 21일~23일/ 1월 28일~30일/
2월 6일~9일/ 2월 12일~14일/ 2월 19일~22일/
2월 26일~28일
문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성이시돌 자연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 사는 평화
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
일시: 3월 6일~8일/ 3월 17일~19일/ 3월 26일~28일/
3월 30일~4월 1일/ 4월 4일~6일/ 4월 10일
~12일/ 4월 19일~21일/ 4월 24일~26일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문의: 02·773·1455, 064·796·4182

가톨릭ON(생활성서사 온라인 클래스)

내용: 김혜운 수녀(성경 본문 줌인 구세서-
1,2편),
김영선 수녀(지혜여정: 역사서),
김효준 신부(바이블가이드: 성경입문가이드),
박형순 신부(지혜여정 이사야, 다니엘, 요나서)
▶pc와 모바일로 자유롭게 수강가능, 수시접수
문의: 010·3092·1108, 02·945·3300,
www.cathicon.co.kr

2022년도 여대생 기숙사생 모집

대상: 서울소재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문의: 전진상교육관 02·726·0700/ 0701
www.jjscen.or.kr 게시판 참고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성경(말씀)피정, 전례(기도)피정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인성, 신앙)
장소: 나자렛예수수녀회 본원 피정의 집
대상: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
(코로나 종식 전 5명 이내)
문의: 010·2133·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 교구/본당

수품자 선발예식

일시: 1월 3일(월) 19:30
장소: 교구청

전국 홍보국장 회의(화상회의)

일시: 1월 5일(수) 10:30

▶ 기타

가톨릭장제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정시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원서접수: 1월 12일(수)까지
문의: 054·851·3021~3/ http://ipsi.csj.ac.kr

2022학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정시모집

원서접수: 1월 3일(월)까지
모집학과: 간호학과 외 14개 학과
문의: 입학처 051·510·0702~8, 0804~8

로템의집 직원 채용 공고

채용분야: 상담원(사회복지사) 1명
접수: 1월 18일(화) 18:00까지, 전자우편
(rothem03@hanmail.net) 및 방문 접수
제출서류: 응시원서(로템의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문의: 055·292·4747
▶구체적 사항은 로템의집 홈페이지(www.
rothem03.or.kr), 교구 홈페이지(http://cathms.kr)
채용정보 참조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원하는날(미리연락)	원하는 곳	010·9353·1773(우 노아 수녀)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p>서울성지순례 2박 3일 25만원 제주성지순례 3박 4일 32만원 성지 7개, 신부님 동행, 각 지역 공항 출발, 특급 호텔 마크코 투어 010-4239-1929</p>	<p>주식회사 바른 도막형바닥재(관급자재 전문)/ 도장공사업 칼라무늬콘크리트/ 벽화 및 디자인 주식회사 바른 (경상남도 전역시공 및 현장설치) 김기수 베드로 문의 : 010-5055-0076</p>	<p>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p>	<p>■ 제주성지 순례 3일/ 4일 1. 10.(월)~13.(목)/ 1. 21.(금)~23.(주일) 1. 24.(월)~26.(수)/ 2. 4.(금)~6.(주일) ■ 한국성지 167 완주 1. 17.(월)~20.(목) 전주·광주대교구 4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p>
<p>백합식품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정맛 백합 매주, 원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백합식품본사 053)857-2037 서울 02)02-2202-8392 대구 053)257-1771 http://spcfood.co.kr</p>	<p>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가잼, 무화과잼, 귤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p>	<p>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 문의: 홍보국 055.249.7072</p>	

2022 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 일시: 1월 4일(화) 14:00 | ■ 장소: 창원문성대학교 체육관 | ■ 주제: 교구장 배기현(콘스탄틴) 주교

사제품



계강준 요한

첫미사 칠원성당
1월 5일(수) 19:30



김현 안드레아

첫미사 반송성당
1월 7일(금) 19:30



임태근 모세

첫미사 호계성당
1월 6일(목) 19:30



정병진 요셉

첫미사 함안성당
1월 7일(금) 19:30



신승혁 요한

첫미사 장평성당
1월 5일(수) 19:30



남하늘 엘리시오

첫미사 대방동성당
1월 6일(목) 19:30

부제품



이창범 라자로
구암동본당



김진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문산본당



장신영 요한 마리아 비안네
옥봉동본당

※ 코로나19로 인하여 서품식 참석을 제한합니다.

교우분들은 마산교구 유튜브 채널
(유튜브 검색: 천주교마산교구)에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암동본당 제19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류상현(요셉)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이준홍(요한)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손점숙(누실라)
총무분과위원장: 진병권(라파엘)
재정분과위원장: 우명윤(미카엘)
홍보관리분과위원장: 정윤규(파스칼)
전례분과위원장: 강문수(요한)
구역분과위원장: 김부자(카타리나)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조남순(발비나)
복음화분과위원장: 송현희(스텔라)
청소년분과위원장: 이명숙(올리아)

완월동본당 제38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옥성호(스테파노)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최세경(요셉)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최미순(말가리다)
총무분과위원장: 김석중(스테파노)
재경분과위원장: 주기영(안드레아)
복음화분과위원장: 최미현(크리스티나)
전례분과위원장: 박해경(헬레나)
지역분과위원장: 임명숙(테레사)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이주호(요셉)
시설분과위원장: 김명주(대건안드레아)
청소년분과위원장: 이민지(프란치스코)
실버분과위원장: 이남현(알베르토)

용원본당 제8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민근휘(야고보)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강순길(다비오)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황말숙(리디아)
총무분과위원장: 이승우(다니엘)
재경분과위원장: 전상래(요셉)
전례분과위원장: 최준형(비오)
사회복지분과위원장: 박소현(크레센시아)
청소년분과위원장: 김현수(요셉)
시설분과위원장: 나연채(요셉)
복음화분과위원장: 김원찬(프란치스코)
가정사목분과위원장: 오봉석(레오)
홍보분과위원장: 이현덕(야고보)

중동본당 제32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최은영(미카엘)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김은수(마리노)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원윤숙(사라)
총무분과위원장: 서무홍(그레고리오)
기획관리분과위원장: 이정우(아우구스티노)
시설분과위원장: 강창엽(레오)
전례분과위원장: 최송자(베네딕타)
소공동체분과위원장: 최명희(마리아)
선교분과위원장: 고귀임(제노베파)
성경분과위원장: 진정순(안토니아)
복지분과위원장: 김정남(로사리아)
청소년분과위원장: 장혜진(로사)
가정사목분과위원장: 김석규(야고보)
시메온학교(교감): 이미옥(루치아)

드러내심, 순히 들음을 통해

수정 성모 트라피스트 수녀원

전 지구적 기후 위기와 코로나 대유행, 지속적인 변이 발생으로 암울해져 가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오늘 교회는 무한에서 유한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이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임금님으로 당신을 드러내심을 경배하며 경축하는 주님 공현 대축일을 지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인물인 동방 박사들, 헤로데 임금,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의 움직임은 보면,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방 박사들은 헤로데 임금에게, 헤로데 임금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문의를 하고, 예언자가 기록해 놓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헤로데에게 그 대답을 주고, 헤로데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며, 동방 박사들은 그 임금의 말을 듣자마자 그대로 길을 떠나, 마침내 유대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온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진솔하게 문의하고, 던져진 질문의 답을 성경에서 찾고, 찾아낸 그 해답을 전해주고, 전해준 이의 말을 어떠한 의심도 없이 듣자마자 바로 실행하는 이 등장인물들의 움직임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들음의 진정성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무엇인지라는 우리 신앙 여정의 역동성을 선명히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 10,17 참조).

이천 년 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알려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그대로 듣고 응답하셨던 동정녀 마리아의 상황이나, 과학 기술 문명이 최고조에 달한 현재의 우리의 상황이나 하느님께서 이 세상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 조건은 별다름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부 성 베네딕도께서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앙으로 알아듣는 ‘귀 기울여 순히 듣는 경청(傾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분 규칙서 머리말의 첫 말씀이 ‘들으라 Obsculta’로 시작하는 것을 미루어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부모는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 안에서 신자들 서로 간에, 신자와 사제들 사이에, 수도자와 사제들 간, 사제들과 주교들 상호 간에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친교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느님 백성 전체가 교회의 삶과 사명에 참여하며 함께 걸어가야 할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의 여정,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온 교회에 요청하신 바로 그것이며, 이를 통해 하느님께서 오늘날 당신을 이 세상에 들음 안에서 현현(顯現)하시는 주님 공현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상호 간의 들음, 상호 순종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 바이러스의 세계 그리고 하늘과 땅, 바다 그 안에 함께 호흡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울부짖음에 더 민감하고 깊이 귀 기울이며,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를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행동하는 생태적 회심과 들음의 감수성을 더 크게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희망의 한 해 되시길 바라며 기도합니다.